

# 국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의 검토와 방향\*

— 새로운 임용시험을 중심으로 —

최미숙\*\*

## < 차례 >

- I. 서론
- II. 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
- III. 임용시험 문항에 대한 검토와 방향
- IV. 결론

## I. 서론

교원 정책은 중요한 국가적 사안 가운데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학교를 개선시키고 더욱 높아진 사회적, 경제적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교 교육은 한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학습과 개인적·국가적 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 주며, 특히 학교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교사는 학교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OECD, 2007)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도 교사의 중요성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희망 직업 설문 조사에서 교

---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38회 학술발표대회(2007. 12. 1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 상명대학교

사가 1위로 꼽히고 있으며,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권위, 중요성, 가치에 대한 평가인 직업위세 순위가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1위, 약사가 2위, 중고 교사가 3위로 나타났다고 한다(장홍근·오영훈·최지희·이동임·정윤경·서우석·이기홍, 2007).<sup>1)</sup>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등 전국 5대 도시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기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41.2%는 자녀들에게 공무원, 교사 등 정부·공공분야에서 일하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국민들이 교사에 대해 갖는 선호도는 예전부터 높았지만 최근에 이르러 더욱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흔히 직업적인 안정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직종에 대한 새로운 가치 평가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007년 말에 발표된 OECD 주관 PISA 2006 결과를 보면, 읽기 영역 평가에서 한국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sup>2)</sup> 57개국이 참여한 PISA 2006의 읽기 영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전체 1위를 차지했으니, 세계 최고 수준의 읽기 능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그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인력이 교직을 선택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수한 인력이 교직을 희망하고, 그런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한 것이 높은 학업성취도 결과를 얻는 데 일익을 담당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사의 질’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끼치는 가장 중요한 학교 변수라는 점(OECD, 2007)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인정하고 있다.<sup>3)</sup> 세계 각국은 교

1)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계공학 엔지니어, 약사가 1~3위를 차지했고 독일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약사, 중소기업 간부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3위인 중고 교사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5위, 독일에서는 7위에 그쳤다. 미국과 독일에서 1위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우리나라에서는 4위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1위인 국회의원은 미국, 독일에서는 각각 6위와 4위로 중위권이었다.

2) 수학은 4위, 과학은 11위를 기록했다.

3) 예를 들면, 평균 수준의 교사에게서 수업을 받다가 교사의 질에 있어서 85퍼센트 포인

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도 시대에 적합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하고 중등교사 임용시험 방식을 개편하는 등 교원양성과 평가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시험 검정에 의한 교사 자격 부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성적이 일정 기준(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07년 4월 2일자 교육인적자원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8학년도 대학 입학자부터 학부과정에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을 폐지하고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며, 일반학과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통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을 현행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질 높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속에서 교원의 질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전 국민적이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적 자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교사, 학교 교육을 제고하는 핵심적 역할로서의 교사가 지녀야 할 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해 볼 시점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여기에서는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과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국어 교사가 어떤 능력을 지녀야 하며, 그런 능력 평가를 위해 어떤 문항이 유의미한가 하는 질문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부터 치르게 될 시험 형태와 문항을 전제로 하여 문항 개발의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새 임용시험 체

---

트의 위치에 있는 교사로 바꿨을 경우, 학생들이 해당 연도에 무려 4퍼센트 포인트 만큼의 향상 정도를 보이게 되며, 이와 같은 효과는 연구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인구 규모에서 10명의 학생을 감축했을 때 거둘 수 있는 학습 효과에 거의 필적한다고 한다. 또 한 교사 효과는 단지 클 뿐만 아니라—가장 우수한 교사들(상위 1/5)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교사들(하위 1/5)에게 배우는 학생들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은 학습 성과를 보인다—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축적되기도 한다(OECD, 2007)고 지적하고 있다.

제는 1차 전공시험은 선택형 문항으로, 2차 전공시험은 논술형 문항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하여 평가 문항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문항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문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II. 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

학교와 교사에 대한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는 학교가 다양한 언어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문화 및 성 차별 문제에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며, 관용과 사회적 단결에 기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가 취약 계층 학생과 학습이나 행동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급변하는 지식 및 학생평가 방식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OECD, 2007). 특히,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교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sup>4)</sup> 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다양한 능력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여기에서는 국어교육에 관한 전공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4) 윤희원(1999 : 140)은 교사는 수업 기능, 평가 기능, 사회화를 돕는 기능, 생활 지도 및 상담 기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로, 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지식 및 이해, 아동·학생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교육 내용에 관한 폭 넓은 지식, 교재의 선정 및 조직의 능력, 교수 기술에 대한 이론적 지식 및 이해,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따르는 윤리의식 등 7가지를 들고 있다. 노명완(2003 : 19~21) 역시 교과 교사의 전문성으로 교과에 대한 바른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 교과의 지도 내용에 대한 이해,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과 기능,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능, 최신 연구 논문의 이해 능력과 현장 연구 수행 능력, 교과와 학생에 대한 사랑과 애정 등 7가지를 들고 있다.

## 1) 교과 지식의 이해

국어과 전공 능력과 관련하여 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을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교과 지식의 이해와 적용’, 그리고 ‘국어 교육 장면의 설계와 실행’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어 교사로서 알아야 할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국어교육 장면을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sup>5)</sup>

교과 지식이란 ‘국어 교사가 알아야 할 국어교육 관련 전공 지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 교육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과 교재,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국어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그런데 교과 지식을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학문인 국어학과 국문학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임용시험 체제에서는 국어학과 국문학의 내용 자체를 다루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교과 지식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국어과 전공지식으로 ‘재구조화’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범대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국어국문학과에서 다루는 국어학, 국문학의 학문 내용과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현대시론’에서 다루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을 교과 지식으로 다룰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어과 전공지식의 관점에서의 재구조화, 즉 시 이해와 해석 교육, 창작교육의 목적과 내용 그

5)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체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선택형 문항으로 이루어지는 1차 전공시험의 평가목표는 ‘국어 교사로서 지녀야 할 국어과 전공 지식(교과 지식)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능력과, 이를 국어교육의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백순근·박선미·양종모·유준희·이춘식·최미숙, 2007). 기존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국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각종의 지식과 이를 활용하여 국어 과목을 교수·학습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윤여탁, 2000 : 142)”해야 한다는 논의가 그것이다.

리고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재구조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국어학과 국문학 관련 내용은 기본이수과목 및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임용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 부분을 교과교육과는 다른 별개의 내용으로 다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어교육을 위해 국어학과 국문학 관련 내용을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국어교육학의 내용으로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국어 교사가 화법, 독서, 작문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어학, 국문학의 내용을 교과지식의 차원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국어학 국문학에서 다루는 내용 모두가 교과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 혹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 2) 교과 지식의 적용 능력

한편, 교사가 알아야 할 교과 지식을 어떤 문항으로 평가해야 하는가와 관련지어 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교과 지식 중에서도 객관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기존 임용시험에 대해 “교사임용시험은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특히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식에 대해 물어야 한다(이남호, 2006 : 211).”라는 논의가 이와 관련된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객관적 지식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 지식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국어과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그렇게 되면 지식의 암기 능력만을 중시하게 될 우려가 있다.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중요한 능력은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교육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따라서 교과 지식을 묻는

문항의 경우 명제적 지식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보다는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교육 장면에 적용하는 문항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해석하거나 재구성하며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즉 교과 지식의 적용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명제적 지식은 원리적·실천적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바탕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읽기 영역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우선 교사는 읽기 특성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천경록(2005)의 연구에 따르면, 국어과 평가 전문성을 갖춘 교사는 읽기의 개념, 읽기의 과정, 읽기의 방법, 읽기의 역사 등과 같은 읽기의 특성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식의 형태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읽기의 과정이나 방법 등은 관점을 달리할 때 다양한 읽기 과정이나 방법을 논의할 수 있으며, 읽기의 역사 또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 지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국어과 교사는 그러한 다양한 읽기 지식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지식 자체, 또한 다양한 읽기의 과정이나 방법을 알고 있는가 자체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관점을 토대로 읽기 교육을 할 경우 그 읽기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 차원일 것이다. 객관적 지식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기보다는 특정 국어교육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국어교육의 관점이나 방법, 그리고 그것의 적용에 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다.

쓰기 교육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성영(2005)에 의하면, 교사가 알아야 할 글에 대한 지식 범주에는 글의 구성 층위, 글의 유형과 그 각각의 구조, 좋은 글이 갖추어야 할 조건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사는 무엇보다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쓰기에 대한 범주에는 쓰기의 개념, 기능, 상황, 특성, 방법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한다. 여기서 교사가 알아야 할 교과 지식이라고 해서 쓰기의 개념, 기능, 상황, 특성 등 자체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면, 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 능력과 적용 능력 모두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지식 자체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보다는 그러한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문항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어교육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평가해야 하며, 적용을 위해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개념이나 지식 등을 알고 있는지 자체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3) 국어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설계와 실행 능력

교사에게는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국어교육 장면을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국어교육의 장면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국어과 교육과정을 해석하는 능력, 교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 학습 목표·학습 내용 등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능력,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보고하는 능력 등 국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설계와 실천 능력을 포함한다.

국어교육의 설계 능력은 단순히 교수·학습을 계획하거나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메타적인 관점에서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최적의 조건을 창출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계획하며 나아가 그 결과를 성찰하는 능력이다. 국어교육 장면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 여기서 설계란 단위 수업의 설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어교육을 성찰하고 국어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 주어진 교육과정, 교재를 바탕으로 하여 수업을 잘 하는 것만이 교사의 몫은 아니다. 국어교육을 성찰하고 국어교육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한 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능력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어교육학은 국어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생명력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국어교육이 취해야 할 방향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며,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매체언어 교육 내용을 도입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국어 교사 역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어교육의 변화를 모색하며, 그러한 방향에 맞게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탐색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다른 학문과 변별되는 지점이며, 국어 교사의 능력을 전공 지식의 이해와 적용 능력만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다. 국어과 전공 지식을 보편적 지식으로만, 명제적이고 원리적인 지식의 차원으로만 한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문항으로는 어려우며, 비교적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서술형 문항이나 논술형 문항이 적절하다. 2009학년도 임용시험의 2차 전공시험에서 ‘국어과 전공 지식(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교육 장면을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논술형 문항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현행 2단계 전형 방식을 3단계로 전환하고, 2차(전공), 3차(면접, 수업실기능력) 시험에서 교사의 자질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험 체제에 의하면, 앞에서 논의했던 교과 지식의 이해와 적용 능력은 1차 선택형 시험을 통해, 국어교육 장면을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2차 논술형 시험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원 임용 시험 제도 개선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1차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형 필기시험(100점)</li> <li>&lt;초등&gt;</li> <li>교육학(30점, 4지선다)</li> <li>—전공(70점, 서술·단답형)</li> <li>&lt;중등&gt;</li> <li>—교육학(20점, 4지선다)</li> <li>—전공(80점, 서술·단답형)</li> <li>• 대학재학 성적(20점)</li> <li>• 가산점(1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형 필기시험(100점)</li> <li>—교육학 및 전공(초등은 교과교육과정) : 5지선다형 (신속한 OMR채점)으로 비중 있는 2, 3차시험 일정 확보 가능</li> <li>* 중등(영어) : 영어듣기 포함</li> <li>• 대학성적(20~40점)</li> <li>• 가산점(5~10점)</li> <li>* 배점비율은 각 교육청이 결정</li> </ul>
	130% 선발(규칙상 2배수 이내)	2배수 이상 선발 (소수 선발과목의 우수자원 확보)
2차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술</li> <li>• 면접</li> <li>• 실기평가</li> <li>* 교육청별 총 50~60점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술형 시험(100점)</li> <li>—전공(교과내용학 및 교과교육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 능력</li> <li>* 중등(외국어) : 외국어로 실시</li> </ul>
	120% 선발	1.5배수 이상 선발
3차 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100점)</li> <li>* 예·체능·과학·교과 등 실기·실험 평가 포함 가능</li> <li>* 중등(외국어) : 외국어로 실시</li> <li>* 초등 : 영어 포함 실시</li> </ul>
합격자 사정	1차+2차 시험 합산	1차+2차+3차 시험 합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시험 중심형</li> <li>—지필고사 비중 과다 (총점의 55%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차 시험 중심형</li> <li>—1차 선택형 필기시험 영향력 축소(총점의 30% 정도)</li> <li>—2~3차 시험 배점 확대 및 적격자 선별가능 강화</li> <li>* 1, 2, 3차 시험 성적의 합산에 의한 합격자 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li> </ul>
<p>* 개선내용의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험실시기관에서 선발배수, 배점비율 및 시험 통합실시 여부 결정</li> <li>—시험실시기관은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직부적격자 확인 평가지표’를 개발·실시</li> <li>—중등(영어) : 1차 영어듣기 포함</li> <li>—중등(외국어) : 2차 논술,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외국어로 실시</li> <li>—초등 :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일부 영어로 실시</li> </ul>		

### Ⅲ. 임용시험 문항에 대한 검토와 방향

여기서는 앞에서 논의한 교과 지식의 이해와 적용 능력, 국어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설계와 실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2009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임용시험 체제를 전제로 하여 문항의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 1) 교과 지식에 대한 평가 문항

1996년 이전, 선택형 문항으로만 출제하던 임용 시험 방식을 1997학년도부터 주관식 서술형 문항으로 전환하여 출제하였다. 이는 선택형 문항으로는 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1차 전공시험을 선택형 평가 문항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2차 논술형 시험을 치르는 인원의 적절성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도 들지만, 자칫 선택형 문항으로 평가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이 선택형 평가 문항만을 반복 훈련하면서 문제 풀이 기술을 연마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어교육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1997년 이전의 선택형 문항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여기서는 교과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선택형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교과 지식에 대한 평가 문항은 앞에서 논의했던 대로 명제적 지식 등의 기초적 지식 중심의 문항을 지양해야 한다.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교육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이 필요하다. 교과 지식을 묻는 문항이라는 이유로 암기한 내용을 재생하는 능력,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해설서 그리고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암기한 후 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회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암기능력이 아니라 적용 능력이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탐구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학에 대한 실체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보다는 실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교육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실체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형 문항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다음 문항(백순근·박선미·양종모·유준희·이춘식·최미숙, 2007)을 예로 들어 선택형 평가 문항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김 교사는 <보기>의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수업을 한 후, 학습자의 성취 기준 도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 기준]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평가 문항]을 만들었다. 평가 기준과 평가 문항이 성취 기준에 적절한지 분석한 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분석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성취 기준] 작문의 상황을 구성하는 요인을 고려하면서 글을 쓸 수 있다.

[평가 기준]

상	작문의 상황을 구성하는 요인을 글쓰기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고려하면서 글을 쓸 수 있다.
중	작문의 상황을 구성하는 요인을 고려하면서 글을 쓰지만, 그것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고려하면서 글을 쓸 수 있다.
하	작문의 상황을 구성하는 요인을 고려하면서 글을 쓰지만, 그것을 원활하게 적용하면서 글을 쓰는 데는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평가 문항]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을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 (60분, 800자)

- ① 글쓴이가 어떤 입장에서 글을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② 글쓰기가 문제 해결 과정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쓸 수 있도록 문항을 구조화해야 한다.
- ③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글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평가 기준의 ‘중’과 ‘하’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중’ 수준과 ‘하’ 수준의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
- ⑤ 쓴 글을 주로 누가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예상 독자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문항에서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 문항은 교사가 특정 성취 기준에 대한 학습자의 도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 기준과 평가 문항을 작성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작문의 상황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 알고 있는지, [평가 기준]의 ‘상’, ‘중’, ‘하’ 수준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 [평가 문항]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이 문항이 전제로 하는 상황은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과 평가 문항을 작성하는 단계로, 아직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은 단계라는 점이다. 이 문항에서 제시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 기준에 비추어 [평가 기준]과 [평가 문항]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스스로 분석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백순근·박선미·양종모·유준희·이춘식·최미숙, 2007), 작문교육, 성취기준, 평가기준, 문항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어야 한다. 작문교육과 국어과 평가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교과 지식을 묻는 선택형 문항의 경우에도 교수·학습 상황이나 국어 교육 상황을 설정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그러한 과제를 수행자가 국어과 교과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조건에서나마 국어교육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논술형 문항에서도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문항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교육 장면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2) 국어교육 장면에서의 문제 해결형 평가 문항

1997학년도 이후 임용시험을 통해 선보인 서술형 문항은 10여 년간의 출제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국어교육 능력을 지닌 교사를 선발하고자 노력해 왔다. 짧은 서술형 문항이기는 하지만 단순 지식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지식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묻고자 노력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수업 장면을 구성하면서 그 장면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제시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문항 형식은 매우 복잡하고 깊은 사고력을 유발하는 듯하지만 실은 간단한 지식만으로 해결되는 문항도 적지 않다. “일반적인 교수·학습 계획이나 응답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점검하는 데 머무는(윤여탁, 2000 : 141)” 문항이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앞으로 개발해야 할 임용시험 문항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2004학년도 문항을 출발점으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문항을 검토하는 이유는 기존 서술형 임용시험 문항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 다음은 ○○중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진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총 7점)

김 교사는 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와 듣기의 통합 수업을 계획한 뒤, ‘문학과 다른 예술을 비교하기’라는 주제로 모둠별 발표 수업을 진행했다.

김 교사 : 여러분, 발표 준비를 해 왔겠죠? 그럼 이제부터 문학과 다른 예술, 즉 연극, 영화, 만화, 회화 등이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를 알아봅시다. ‘가’ 모둠의 발표에 대해 ‘나’ 모둠이 평가하도록 합니다.

<‘가’ 모둠의 발표>

(자료 화면을 보며) 우리 모둠은 ‘소설과 만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설과 만화

• 소설 : 선조적, 시간적 구성

“그 화적은 비호 같았다. 동에서 번쩍 서로 닫고 서에서 번쩍 북으로 달았다. 사방에서 연해 나는 악 소리 중에 간간이 소리가 섞여 나는데, 아이쿠 소리 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 하나가 자빠지거나 거꾸러졌다. 화적의 칼에 찔리거나 찍힌 것이다.”

• 만화 : 이미지 배치, 공간적 구성



(시선을 자료 화면에 고정한 채) 소설은 선조적인 질서 속에 이루어지는 시간적 구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에 비해 만화는 이미지를 배치하는 공간적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과 만화는 모두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 속에서 행위의 의미를 서술해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임꺽정’에는 임꺽정의 활약, 신출귀몰한 무술, 싸움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읽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만화는 몇 개의 격자 구조 속에 활약, 무술, 싸움 과정이 다 들어 있어 쉽게 읽거나 볼 수 있으므로, 소설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갈래라고 생각합니다.

<‘나’ 모둠의 평가>

- 동영 : 말이 너무 어려워. ‘선조적’이니, ‘격자’니 하는 말들……. 전체 설명도 쉽게 이해가 안 돼.
- 서희 : 맞아!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도 좀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 공통점도 중요한 내용인데, 자료 화면에는 빠졌잖아?
- 남수 : 뒷부분에서 차이점을 자세히 밝힌 것까지는 좋았는데……. 소설보다 만화가 더 매력적이라는 건 자기들만의 생각이지.
- 북명 : 발표를 듣는 건 우린데, 계속 화면만 보면서 재미없게 발표했어.

- 1-1. ‘나’ 모듬의 평가로부터 ‘가’ 모듬에 적용할 교수·학습 내용을 추출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4점)

평가자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동영		
서희		
남수		
복명		

- 1-2. “상황에 따라 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하여 말한다.”라는 목표를 추가하여, ‘가’ 모듬을 직접 교수법으로 지도하고자 한다. 지도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지도 내용을 쓰시오(3점)

<조건> ‘가’ 모듬의 실제 발표와 관련지어 설명할 것.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이 문항은 매우 구체적인 수업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이 수업 장면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구조화하면서 수업 장면을 떠올려야 한다. 중학교 국어 교실, 김 교사, 정보전달을 위한 말하기와 듣기의 통합 수업 진행, ‘문학과 다른 예술을 비교하기(소설과 만화)’라는 주제, 모듬별 발표 수업, 소설 임격정과 만화 임격정, 상호 평가 방식,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등. 이런 수업 상황 설정에 대해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기보다는 인위적 상황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국어교육 장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인위적 상황의 설정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수업 장면의 설정은 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상황을 구조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문항에서 정작 수험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비교적 단순해 보인다. 기초적인 지식으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이다. 1-2 문항의 경우 ‘가’ 모듬의 발표에서 ‘(시선을 자료 화면에 고정된 채)’



에 유의하면 금방 답할 수 있다. 상황 자체는 복잡한데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나치게 단순한 경우로, 이런 유형의 문항은 다른 문항에서도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기존의 임용 시험 문항에 대해 수험자가 자신의 반응을 구성하여 답하는 문항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형의 문항이 제시하는 수업 장면을 수험자의 입장에서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복잡한 수업 장면을 구조화한 상태에서 단순한 문항으로 끝내기보다는 국어교육에 관한 포괄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의 관점이나 내용, 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교육 장면에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충분한 사유 과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문항이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국어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설계와 실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수 비중이 낮은 문항보다는 높은 비중을 지닌 문항으로 구조화하여 비교적 호응이 긴, 수험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반응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작성할 수 있는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이 때 좀더 바람직한 것은 논술형 문항일 것이다.

기존의 임용시험에서도 논술 시험은 있었다. 주로 2차에서 치렀던 논술 시험은 주로 교직과 관련된 교직원, 자질, 소양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교육학 기반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2009학년도부터는 전공을 기반으로 한 논술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다. 논술형 문항을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기존의 서술형 문항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능력, 즉 짧은 시간에 급하게 답안을 서술하는 능력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어교육 상황이나 장면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논술형 문항(백순근·박선미·양종모·유준희·이춘식·최미숙, 2007)을 바탕으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한다.

[문항] 김교사는 10학년 국어 시간에 <보기>의 성취 기준을 위한 수업을 하고자 한다. <가>, <나>, <다>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면서 <라>의 교수·학습 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수·학습 자료 활용 방안, 교수·학습 과정 적용 방안, 평가의 방안에 대하여 각각 <조건>을 고려하여 서술하되, 연계성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서술하시오.(20점)

### < 보 기 >

- 성취 기준 :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 조 건 >

- ‘교수·학습 자료 활용 방안’에서는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여 서술할 것
- ‘교수·학습 과정 적용 방안’에서는 <라>에 제시된 각 과정별로 다루어야 할 활동과, 그 활동과 관련하여 교수·학습 자료 제시 방식도 포함하여 서술할 것
- ‘평가의 방안’에서는 교수·학습 과정별 수업 장면과 평가 항목을 관련지어 서술하되, 그 이유도 제시할 것

#### <가>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나>

「진달래꽃」의 주제는 ‘이별의 정한’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는 원치 않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여인의 진술, 다시 말하면 지금 눈앞에 닥쳐온 이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우선 이 시의 표면적 의미를 대략 살펴보면 ‘화자는 연인으로부터 버림받지만 슬픔에 앞서 연인을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고(1연), (진달래꽃을)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려드리며(2연), 떠나시는 연인에게 짓밟힘도 마다하지 않고(3연), 마침내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연인에게 버림받아 증오심과 원한에 빠진 사람이 이처럼 맹목적인 순종이나 관용의 미덕만을 보여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화자는 극한적, 절망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비록 공상이라 할지라도 언제인가 돌아올님과 미래에 있을 합일을 위해) 증오와 원한이라는 내적 감정의 진실을 숨기고 그 대신 겉으로 사랑과 순종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가 심층적인 감정을 숨기고 반어적인 표현을 써서 표면적으로 순종의 미덕만을 보여 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남이지만 속마음에서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 즉 남에 대한 집념과 미련의 잠재의식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논의의 맥락에서 이 시는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이란 우선 서로 모순되는 두 층동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감정이다. 한은 결코 통일된 혹은 해결된 감정일 수 없다. 그것은 복합된 갈등의 감정이며 동시에 미해결의 감정이다.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에는 뒤로 돌아가고자 하는 미련이 강렬하게 남아 있는 감정, 그리하여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모순에 맺혀있는 감정이다.

#### <다>

「진달래꽃」은 지금 눈앞에 닥쳐온 이별의 상황에 대한 진솔이 아니라 불명확한 가상적 상황에 대한 진솔이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이라는 구절이 말해주듯이 ‘이별’은 아직 현실로 닥쳐온 것이 아니며,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 시의 화자는 언제나 자신이 원치 않는 방식(‘나 보기가 역겨워’)으로 이별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을 아름따다/가실 길에 뿌릴지언정 죽어도 아니 눈물흘리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사랑에 빠진 여자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이라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때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 시의 화자가 굳이 이별이라는 불행한 상황을 상정한 것은 자신의 사랑을 둘러싼 상황과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는 여인들의 사랑이 부닥치게 되는 보편적인 운명을 깊이 통찰하고 있기 때문. 이 정도의 통찰력을 갖춘 여인이라면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담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라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그런 세상 이치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고통스러운 이별이 현실화되는 순간에조차 자신의 인간적 존엄과 품위를 지키고, 사랑의 숭고함을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의 화자가 자신

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고 절제된 인격의 소유자임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 시의 화자가 가부장제 하의 여인들이 항용 그렇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예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이 시의 화자는 상대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지만, 결코 그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거나 예속되어 있지 않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정신의 소유자인 것.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정신을 지닌 강인한 여성화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시에 대한 감상의 방향도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즉, 인고의 정신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여인들의 전통적인 한에 감상이 초점이 맞추어지는 대신, 사랑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그것을 절제하고 승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인간적인 존엄과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소중하게 지켜가려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정신을 지닌 강인한 여성 화자 모습에 감상의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라> 작품 읽기를 위한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 사	학 생
독자의 내적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자 스스로 내적 대화를 나누며 시를 읽을 수 있도록 수업 상황 조성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해석에 필요한 질문을 독자 스스로 생성하고 답하면서 해석하기</li> <li>다른 여러 해석 중 스스로 가장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해석(자배적 해석)을 선택하기</li> </ul>
독자와 독자 간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읽기 내용에 대한 근거와 다른 독자의 근거를 바탕으로 상호 대화를 나누기</li> <li>대화를 나누며 각 근거의 설득력을 비교하며 판단하기</li> <li>대화를 나누며 애매한 해석 내용 명료화하기</li> </ul>
교사와 독자 간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동안의 대화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관점 제시하기</li> <li>의미 있는 해석을 부각시킴으로써 경쟁적 대화를 추동시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시 읽기</li> <li>좀더 근거 있는 해석 도출하기(학생)</li> </ul>
시의 의미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스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시의 의미 정리하기</li> </ul>

이 문항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교육 장면을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이런 문항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답할 수 있는 문항이며, 수험자의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하기에 적절할 것이다. 이 문항은 수험자가 써야 할 항목을 3가지로 제시했는데, 그 3가지 과제는 교수·학습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국어교육 장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와 관련이 있는 과제이다. 한편 인용한 문항처럼 써야 할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논하시오.’처럼 국어교육적 관점을 바탕으로 좀더 포괄적으로 접근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구조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논술형 문항에서는 단독과제형보다는 자료제시형 논술 문항이 더 적절하다. 단독과제형 문항으로는 국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어교육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해석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료제시형 논술 문항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술형 문항이든 논술형 문항이든 추상적인 문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험자와의 의사소통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 작중 인물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밝히려는 문항, 시적 상황을 전제로 하라는 등의 문항에서 ‘작가의 시선’이나 ‘시적 상황’이라는 표현은 자칫 수험자가 무엇을 중심으로 반응을 보여야 할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애매한 표현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채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 3) 수험자의 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지닌 채점 기준

서술형 문항과 논술형 문항의 최종 성패는 채점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채점 기준이 문항의 요구에 적절해야 하며, 수험자의 반응에 대해 변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선발고사 문항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기존 임용시험의 경우,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채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운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논술형 문항의 채

점 기준에 대해서는 ‘논제 이해, 내용 생성, 내용 조직 및 표현, 표현·표기 능력 등 일반적인 논술 채점 기준을 준용할 수도 있지만, 문항의 내용에 맞게 수험자의 능력을 위계화·상세화한 채점 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논술형 문항과 관련하여 다음 채점 기준<sup>6)</sup>—앞에서 제시했던 논술형 문항의 채점 기준이다—을 출발점으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교수·학습 자료 활용 방안(6점)]+[교수·학습 과정 적용 방안(6점)]+[평가 방안(6점)]+[표현·표기(2점)]=총 20점

[교수·학습 자료 활용 방안(6점)]

—성취 기준과 관련지으면서 교수·학습 자료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6점 : 「진달래꽃」의 다양한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나>와 <다>의 해석상의 차이를 상세하게 언급하며 활용한 경우
- 4점 : 「진달래꽃」의 다양한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나>와 <다>의 해석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을 언급한 경우
- 2점 : 「진달래꽃」의 해석 자료라는 관점에서 <나>와 <다>를 언급하였으나, ‘다양한 해석’에 대한 서술이 없고 <가>, <나>, <다>를 각기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친 경우
- 0점 : 무응답. 혹은 「진달래꽃」에 대해 서술하지만 성취 기준과 <조건>을 전혀 만족하지 못한 경우

\* 5점, 3점, 1점의 처리 방안

—내용의 구체성과 충실성을 기준으로 하여 6점, 4점, 2점에서 1점 차감하여 처리한다.

[교수·학습 과정 적용 방안(6점)]

—성취 기준과 관련지으면서 교수·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교수·학습 과정별로 제시하였는가

- 6점 : 교수·학습 과정의 각 과정별로 교사와 학생이 해야 할 활동을 「진달래꽃」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가> 자료는 처음에 제시해야 하지만, <나>와 <다> 자료는 ‘독자와 독자의 대화’ 이

6) 이 채점 기준은 백순근·박선미·양종모·유준희·이춘식·최미숙(2007)에 실린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제시한 것이다.

후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서술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4점 : 교수·학습 과정의 각 과정별로 교사와 학생이 해야 할 활동을 「진달래꽃」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가>, <나>, <다> 자료의 제시 순서가 적절하지 않음.
  - 2점 : 교수·학습 과정의 각 과정별로 교사와 학생이 해야 할 활동을 「진달래꽃」을 예로 들어 서술하되,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서술한 경우. <가>, <나>, <다> 자료의 제시 순서가 적절하지 않거나 언급이 없음.
  - 0점 : 무응답. 혹은 교수·학습 과정을 서술하지만, 성취 기준과 <조건>을 전혀 만족하지 못한 경우  
\* 5점, 3점, 1점의 처리 방안
- 내용의 구체성과 충실성을 기준으로 하여 6점, 4점, 2점에서 1점 차감하여 처리한다.

[평가 방안(6점)]

-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과정별 수업 장면과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관련지으며 제시하였는가
  - 6점 : 교수·학습의 각 과정별 수업 장면과 관련지으며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제시한 경우.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그 이유와 함께 제시해야 함.
  - 4점 : 교수·학습의 각 과정별 수업 장면과 관련지으며 평가 항목과 그 이유를 단편적으로 제시한 경우. 대화 과정에서의 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달래꽃」을 예로 들어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음.
  - 2점 : 교수·학습 과정의 각 단계별 수업 장면에서 추상적인 평가 항목과 이유를 제시한 경우.
  - 0점 : 무응답. 혹은 수업과 평가에 대해 서술하지만 성취 기준과 <조건>을 전혀 만족하지 못한 경우.  
\* 5점, 3점, 1점의 처리 방안
- 내용의 구체성과 충실성을 기준으로 하여 6점, 4점, 2점에서 1점 차감하여 처리한다.

[표현·표기(2점)]

- 비문이 없으며 띄어쓰기와 맞춤법 및 문장 부호가 정확하고 분량이 적절한가

- 2점 : 비문이 없으며 띄어쓰기와 맞춤법 및 문장 부호가 정확하고 글의 분량이 적절한 경우
- 1점 : 비문, 띄어쓰기, 맞춤법 및 문장 부호, 글의 분량 등에서 부분적으로 오류나 부적절함을 보이는 경우
- 0점 : 비문, 띄어쓰기, 맞춤법 및 문장 부호, 글의 분량 등에서 자주 오류나 부적절함을 보이는 경우

이 형태의 채점 기준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평가 항목에 맞게 점수를 차등화함으로써 수험자가 보일 다양한 반응을 위계화하여 제시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 문항은 총 20점짜리 문항으로 수험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항목에 따라 채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현·표기’부분을 제외할 경우, 모든 항목을 6점으로 하여 ‘6/4/2/0점’으로 채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점수별로 수험자의 답안을 위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 기준처럼 요소별 채점 기준보다는 서술해야 할 내용을 몇 단계로 위계화하여 채점 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좀더 의미 있을 것이다. 위 채점 기준에 의하면 0점부터 20점까지 모든 점수 부여가 가능해진다. 논술형 문항을 5문항으로 하고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0점부터 100점까지가 가능해지는 것이며, 따라서 점수 간 변별력은 높아질 수 있다.

또 이 채점 기준을 보면 기본 점수가 없는데, 이는 논술형 문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 20점 만점에서 얼마간 기본 점수를 줄 경우, 점수 차가 좁아져서 논술형 문항의 변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험자의 반응을 위계화하면서도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의 채점기준이 선발형 고사로서의 임용시험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 IV. 결론

국어과 교사는 국어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임용



시험 체제는 국어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의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부터 새로운 시험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며, 그 특성은 전공 1차 시험은 선택형 문항, 전공 2차 시험은 논술형 문항, 3차 시험은 수업실기 능력 평가 형태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 중에서도 제1차와 제2차 전공시험에 한정하여 기존의 임용시험 문항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국어과 전공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하나는 ‘교과지식의 이해와 적용 능력’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국어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설계와 실행 능력’을 들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임용시험의 특성과 관련지어 논의한 것으로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국어교육을 실행하는 능력, 나아가 국어교육을 메타적으로 바라보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임용시험 문항의 방향은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교과지식을 국어교육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 국어교육 장면에서의 문제 해결형 평가 문항이 그것이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과 논술형 문항을 위해 수험자의 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지닌 채점 기준 또한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논의한 임용시험의 방향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평가 문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2009학년도부터 새로 실시되는 임용시험 형태보다는 국어 교사 선발이라는 본질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용시험 체제, 그러한 체제에 걸맞은 평가 문항 형태 등 좀더 근원적인 문제 제기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용시험의 체제와 문항에 대한 고민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 본 논문은 2008. 2. 27. 투고되었으며, 2008. 3. 7. 심사가 시작되어 2008. 3.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수업(1989), 「보다 나은 중등교육자 양성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 주제 선정의 뜻」, 『중등교육연구』 제1집,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중등교육연구소.
- 김수업(1996), 「교원전형제도개선(안)에 따른 국어과의 전형방안 모색」, 『중등교육연구』 제8집,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중등교육연구소.
- 김중신(2004), 「중등학교 임용시험(국어과)의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연구』 제20집, 국어교육학회.
- 김혜영(2006), 「사범대학교 국어과의 교사교육체제와 지향점」, 『국어교육학연구』 제26집, 국어교육학회.
- 노명완(2003), 「교과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교사의 전문성」, 『교과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교과교육공동연구학술세미나 자료집.
- 백순근·박선미·양종모·유준희·이춘식·최미숙(2007),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와 채점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윤여탁(2000), 「국어 교사 임용 시험의 실태와 비판 : 중등학교 임용 시험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2호, 한국어교육학회.
- 윤희원(1990), 「국어과 교사의 자질과 그 양성」, 『국어교육 개선 방안 연구 학술 세미나 자료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윤희원(1999), 「언어 지도 교사의 전문성」, 9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가을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어교육학회.
- 이남호(2006), 「중등학교 임용시험 국어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19호, 한국어교육학회.
- 이삼형(2006), 「국어과 교원 양성 교육의 개선 방향」, 『세계화시대 교원양성교육의 개혁과 사범대학의 역할』 상명교육 70년 사범대학 학술세미나,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 이성영(2005), 「국어과 교사의 쓰기 영역 평가 전문성 기준과 모형」, 『국어교육』 제117호, 한국어교육학회.
- 이충우(1989), 「중등학교 국어과 교사 양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65·66호, 한국어교육학회.
- 이충우(2004), 「중등학교 국어 교사 연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19집, 국어교육학회.
- 이충우(2005), 「국어과 교사의 국어 지식 영역 평가 전문성」, 『국어교육』 제117호, 한국어교육학회.

- 임철성(2003), 「사대 국어교육과 교육과정」, 『국어교육학연구』 제19집, 국어교육학회.
- 장홍근·오영훈·최지희·이동임·정윤경·서우석·이기홍(2007),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2007)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천경록(2005), 「국어과 교사의 읽기 영역 평가 전문성 기준과 모형」, 『국어교육』 제117호, 한국어교육학회.
- 최영환(2006), 「초등학교 국어 교사 양성과정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26집, 국어교육학회.
- 최지현(2006), 「국어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국어교육학연구』 제26집, 국어교육학회.
- OECD(2007), 『교사가 중요하다 : OECD 국가 교원 인사 정책 국제비교』, 김이경 외 역, 한국교육개발원.

<초록>

국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의 검토와 방향  
- 새로운 임용시험을 중심으로 -

최미숙

국어과 교사는 국어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임용시험 체제는 국어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의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부터 새로운 시험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며, 그 특성은 전공 1차 시험은 선택형 문항, 전공 2차 시험은 논술형 문항, 3차 시험은 수업실기 능력 평가 형태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이 중에서도 제1차와 제2차 전공시험에 한정하여 기존의 임용시험 문항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국어과 전공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2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교과지식의 이해와 적용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국어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설계와 실행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임용시험 문항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지식을 국어교육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 국어교육 장면에서의 문제 해결형 평가 문항이 그것이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과 논술형 문항을 위해 수험자의 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지닌 채점 기준이 필요하다.

【핵심어】 국어과 교사, 임용시험, 평가 문항, 선택형 문항, 논술형 문항, 채점기준

<Abstract>

A Reflecting and Directing of Test Items  
in the Korean Teacher Employment Test

Choi, Mee-Sook

The abilities for Korean teacher to have are the very important element to determine the quality of Korean education. When we inquire into the abilities which are required of Korean teacher in the terms of a special study, we should consider two abilities. One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Korean knowledges and applicate it to teaching-learning practices, the other is the ability to plan and perform Korean education totally. To assess them, it is the followings which should be considered with regard to test items. One of them is test item which assesses the ability to applicate Korean knowledges to practices of Korean education and the other is the test item to assess the capability of problem-resolving. With regard of essay items,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scoring rubric concretely.

【Key words】 Korean teacher, employment test, items, essay items, scoring rubric

【토론문】

“국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의 검토와 방향”에 대한 토론문

이관규(고려대 국어교육과)

얼마 전에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와 채점 방안 연구”(백순근 외, 2007) 보고서가 나왔다. 거기에서 발표자는 국어과 교사 임용 시험의 문항의 방향을 말아 집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표는 내년에 시행될 국어과 임용시험의 출제와 채점 방안의 방향을 암시해 주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토론자는 이번 발표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임용시험 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문에서는 ‘교과 지식의 이해와 적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예를 들면 문학에 대한 실체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보다는 실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교육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실체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문항 개발이 국어과의 모든 영역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화법 영역 같은 경우 지식의 범위는 무엇이고 적용의 범위는 무엇인지 나누기도 어렵고, 또 문법 영역 같은 경우 지식의 범위는 뚜렷하나 적용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이 국어과 영역에 따라 ‘지식 이해와 적용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럴 경우 영역에 따라서 지식 이해 쪽을 강조한다든가 혹은 적용 능력 쪽을 강조한다든가 하는 차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와 함께 영역에 따른 통합적 평가 문항의 개발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하면 좋은지도 궁금하다. 이는 평가해야 하는 걸 제대로 평가하는지와 같은, 영역마다의 문항 타당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내비친 것이다.

둘째, 본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평가 내용으로 국어과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동안 교사양성기관의 커리큘럼에서 국어과의 표시과목으로 ‘국어교육론,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국어사, 국문학사, 국어문법론, 소설론(또는 시론, 또는 희곡론, 또는 수필론, 또는 의사소통론)’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다가 2007년 11월 23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고한 개정(안)에는 ‘국어교육론,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국어문법론, 소설론(또는 시론, 또는 희곡론, 또는 수필론, 또는 의사소통론), 표현교육론, 국어평가 관련 강좌’가 안으로 나와 있다.

핵심은 ‘국어사, 국문학사’ 과목이 없어지고 ‘표현교육론, 국어평가 관련 강좌’가 들어간 것이다. 옛말 국어와 국문학 역사에 대한 것은 경시되고 쓰기와 말하기 및 평가 관련 내용이 강화된 안이다. 쓰기와 말하기를 강조하는 것은 2차 시험과 3차 시험과 관련되고, 평가 관련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국어과 영역에 관련된다. 그렇다면 중세국어를 비롯한 옛말 관련 강좌는 없어도 되는 것인지, 또 국문학의 흐름을 다루는 강좌는 없어도 되는 것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국어사 내용이나 국문학 역사 내용은 ‘지식’은 되지만 ‘적용’과는 일정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셋째, 문항의 타당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채점의 신뢰도이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이라면 당연히 채점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수궁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2차 시험인 논술시험 문항은 태생적으로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한다. 주지의 사실이다시피 대입 논술시험에 대한 채점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아주 낮아서, 대학에서는 그 점수를 조금만 반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발표문에서는 채점 기준을 공개하면 수험자 자신이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채점 기준 공개로 인한 부작용은 눈에 선하다.

그렇다고 해서 출제자가 모든 답안지를 채점할 수도 없다. 수많은 답안지를 출제자가 어떻게 모두 채점할 수 있단 말인가? 혹시 1차 시험에서 2배수만 가려내어 몇 백 장만 채점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럴 경우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대학 수업이 선택형 문항 평가 준비 기관으로 황폐화될 위험도 있다. 논술형 평가를 갖고 붙고 떨어지고를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다. 결국 임용시험에서의 논술형 문항이라 하면 전공 지식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발표자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다.

넷째, 새로운 임용시험 제도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궁금증을 몇 가지 적고 싶다. 일반적으로 출제자의 입장에서 논술형 문항보다 선택형 문항을 출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실제 발표자가 보인 선택형 문항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임용시험 제도 계획을 보면 1차 시험이 3시간에 걸쳐 풀 수 있는 80개 문항을 낸다고 했는데, 그 많은 선택형 문항을 현행의 적은 수 출제 인원으로 그리고 그리 짧은 출제 기간 동안 무슨 수로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세 차례에 걸친 임용시험 시기에 대한 문제, 1차 시험의 중요성으로 인한 대학 수업 과행화(4학년 2학기 수업 진행 양상과 수업의 질 등의 문제 등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려로 떠오른다. 특히 1차 시험에서 정원의 몇 배를 선발할 것인지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채점의 신뢰도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갖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을 적어 보겠다. 연구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고 본다.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과목과 사범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이 차이가 있어야 하고, 또한 중등학교에서 교수 학습되는 과목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중등 국어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의 문항은 가르치는 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교육 현장을 기능론적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해도, 국어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어 교사가 학생과 똑같이 창의력과 논리력만 갖추고 있다면, 지식 전달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은 없



다고 할 수 있기까지 하다. 10시간을 준비해서 1시간 가르친다고 하는 가르침의 기본적 원리는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어교육의 목표는 국어 능력 신장이다. 이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어 교사이다. 이 중요한 국어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시험 문항 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발표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창밖의 나뭇가지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다. (최미숙 선생님 모두 가지세요)